

##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Offenders' perception of restorative poling

- Focusing o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

임형진\*\* · 김문귀\*\*\*

Lim, Hyung-Jin · Kim, Moon-Kwi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투고일자: 2024년 04월 19일   ┃심사일자: 2024년 05월 18일   ┃게재확정: 2024년 05월 22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7176).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형사사법학 박사(제1저자).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 박사(교신저자).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최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가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87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는 81명의 설문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경찰관과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및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프로그램 경험 후, 가해자들은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자신의 입장 및 감정 표현 기회 제공, 진행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넷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경험 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이 오해(원한) 풀기, 피해결과와 과오에 대한 인식,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 불편한 감정 해소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 권유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 앞으로, 그리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 반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 모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진행자에 비해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만족감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이

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가해자, 평가

## I. 서론

다세대 주택 아래층 거주자가 새벽에 기타를 치고, 욕설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위층 거주자는 참다 못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양자의 입장을 청취한 경찰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연계하였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위층 거주자는 자신의 딸이 새벽에 게임을 하여 아래층에 소음을 전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주의시킬 것을 약속하였고, 아래층 거주자도 욕설 문자 등 행위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후, 위층 거주자는 경찰에 아래층 거주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전달하였고, 위 신고 사건은 입전 전 사건으로 종결되었으며, 같은 내용의 재신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sup>1)</sup>

위 사례와 같은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경찰에 빈번하게 신고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응보적 경찰활동만으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응보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문제 재발의 악순환만 가져올 수 있으며, 급기야 폭행, 상해,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경찰은 응보적 경찰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회복적 대화’(restorative dialogue) 프로그램을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경찰서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다.

1) 층간소음·이웃갈등 대화로 푼다...회복적 경찰활동 확대  
<https://news.nate.com/view/20220830n13374> (2024. 4. 18 검색)

한국 경찰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또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sup>3)</sup> 더불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의 시각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4)</sup> 한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관련 사건 담당 수사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sup>5)</sup>

위와 같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들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아직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연구들이 사용한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 해당 연구들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해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단지 논문 한 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해당 연구들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상당수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즉,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해자 상당수를 상대로 그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문 및 경찰실무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2) 임형진·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pp.131-163.

3) 임형진·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진행자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pp.367-405.

4) 임형진·김용석·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담당경찰관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2021, pp.129-161.

5) 임형진·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사건 담당 수사관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47-70.

## II. 이론적 배경

### 1. 회복적 경찰활동의 이론과 실제

처벌과 교정에 기초한 응보적 형사사법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등장한 것처럼,<sup>6)</sup> 피해와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수사와 범인검거 중심의 전통적(응보적) 경찰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회복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단일의 확립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sup>8)</sup> 영국 테임즈밸리(Thames Valley) 경찰관서장이었던 멜 로프티(Mel Lofty)가 회복적 경찰활동을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원리, 철학 또는 접근방식”<sup>9)</sup>으로 정의한 이래, 지지자들에 의한 다양한 개념화 혹은 특징 기술이 이루어져왔다.<sup>10)</sup>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학술이론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이념과 실천유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며,<sup>11)</sup> 새로운 실천유형과 함께 끊임없이 그 의미가 진화하는 복잡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sup>12)</sup> 이와 같은 개념적 탄력성 및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개념적 모호성을 양산하고 지지자들 내부의 균열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국의 상황에 맞게 회복적 경찰활동의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나라들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확산 또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도

6)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18.

7) 김문귀 외, 현장경찰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방안 연구, 경찰청 정책유역연구보고서, 2020, p. 25.

8) 김문귀,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법학회, 2017, p.234.

9) Lofty(M.), *Restorative Policing, “Dreaming of New Reality,”*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ferencing Circles and other Restorative Practice, August 8-10, Minneapolis, Minnesota, 2002, [www.iirp.org/library/mn02/mn02\\_lofty.html](http://www.iirp.org/library/mn02/mn02_lofty.html).

10) Clamp(K.), Paterson(C.), *Restorative policing: concepts,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17, pp.36-39.

11) Johnstone(G.),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Willan Pub, 2002, p. ix.

12) Van Ness(D.), Strong(K.), *Restoring Justice: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fifth edition. 2014, p.44

작용할 수 있다.<sup>13)</sup>

국내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 연구에서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범죄 및 무질서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분쟁의 해결에 있어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인 피해자, 가해자(행위자), 공동체(지역사회) 구성원, 진행자, 경찰관 등이 참여하는 대화와 협의의 절차를 통해 범죄 및 갈등·분쟁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회복,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회복, 문제되는 사안의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지역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원리, 철학 또는 접근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4)</sup>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있어 공동체의 개입을 강조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해결과 예방에 시민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범죄예방, 지역사회의 실질적 문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전략으로서, 범죄를 그 차제보다는 지역공동체 문제의 증상으로 인식하고, 사후 대응보다는 문제의 초기단계에서의 해결을 중시하며, 다른 사회적 조직들과 시민, 경찰을 통합시키는 경찰활동 패러다임인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역시 회복적 경찰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sup>15)</sup>. 다시 말해, 회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혹은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은 모두 범죄·무질서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시민참여와 개입, 협력관계, 문제해결, 공동책임 등 지역사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또는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과 양립가능한 개념이다.<sup>16)</sup> 실제, 영국, 미국, 호주, 벨기에 등 많은 나라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

13) Kim(M.K), *Essai sur la justice restaurative illustré par les exemples de la France et de la Corée du Sud*, Thèse, Université de Montpellier, 2015, pp.34-35(김문귀,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 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p. 25에서 재인용).

14) 김문귀·임형진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20, pp.239-240.

15) 김문귀 외, 현장경찰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방안 연구, 앞의 보고서, p.29.

16) Nicholl(C.),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 Exploring the links for the delivery of a balanced approach to public safety*. US Department of

을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나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의 정당성 확보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타일러(Taylor)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도 유사성이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나 갈등·분쟁의 당사자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중시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에서 경찰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 스스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문제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회복적 절차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인식하고 자신들이 그 절차에서 적극적인 역할(특히 피해자의 경우가 그러하다)을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sup>17)</sup>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sup>18)</sup>

개념적 다양성만큼이나 회복적 경찰활동이 실현되는 방식 역시 매우 다양하다. 각각의 실천 모델 혹은 프로그램마다 사건선별 방식과 적용범위, 진행절차, 절차의 참여자 및 진행자, 경찰의 역할, 법적 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sup>19)</sup> 회복적 경찰활동의 주된 적용 영역은 형사사범이지만, 최근에는 경찰활동 전반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주로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조정, 회합, 써클 등)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경찰의 종국처분에 반영하거나 이후 사법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20)</sup> 많은 나라에서 이 같은 회복적 경찰활동은 주로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1999; 김문귀 외, 위의 보고서, p. 29.

17) Tubex(H.), Houchin(R.), Opportunities for restorative justice in the contemporary penal climate,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173-188.

18) 김문귀 외, 현장경찰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방안 연구, 앞의 보고서, pp.30-31.

19) 외국의 다양한 회복적 경찰활동 실천방식에 대해서는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op. cit.*; 김문귀 외 공역,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대학 출판부, 2016; Clamp(K.), Paterson(C.), *Restorative policing: concepts, theory and practice. op.cit.*, p. 42 이하; 김문귀 외, 위의 보고서, pp. 35-91; 이승현,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1호, 경찰대학, 2019, pp. 221-226 참조.

20) 임형진·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사건 담당 수사관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제66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p.52.

다이버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성인 및 중대 범죄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형사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찰활동의 전반에 회복적 사법(정의)의 이념과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sup>21)</sup>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경찰활동은 갈등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정·학교·이웃·직장 등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과 같은 비범죄 상황이 범죄로까지 악화되기 이전에 경찰의 조정·중재 하에, 갈등의 당사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동체의 분쟁·갈등 관리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회복적 경찰활동은 직접 대면 방식 외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활용된다. 즉,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조직 내 갈등 및 경찰민원을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즉,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경찰징계사건 그리고 시민이 제기한 경찰민원에 대해 회복적 사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갈등해결 및 관계 회복이 시도되고 있다.<sup>22)</sup>

## 2. 한국 경찰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한국 경찰이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원리를 경찰활동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경찰청의 소년 사건에 대한 ‘가족회합 프로그램’ 시범운영<sup>23)</sup>, 2012년 광주경찰청의 ‘가족회합 프로그램’ 시범운영<sup>24)</sup>,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강원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21) 김문귀 외, 현장경찰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방안 연구, 앞의 보고서, p.31.

22) 김문귀 외, 위의 보고서, pp.31-32.

23)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pp. 93-145;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p.29-51.

24) 김혁, “경찰의 효과적 학교폭력 대응방안”, 경찰인재개발원 논문집, 제29집, 2013, p.59 이하.



프로그램<sup>25)</sup>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의 시범운영은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가족회합’과 연계시키는 시도였고,<sup>26)</sup> 강원경찰청의 프로그램은 ‘서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경찰 다이버전과는 분리된 절차로서,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분쟁 상황에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27)</sup> 하지만,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나 법원 심리 단계의 ‘화해권고’와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고 여러 가지 제도적·실무적 한계 때문에 경찰의 이와 같은 노력이 제도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sup>28)</sup>

이와 같은 교착 상태는 2018년 말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및 범죄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sup>29)</sup>으로 설정하고 있다.<sup>30)</sup>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 하나로 경찰청에서는 회복적 정의 실천모델 중 서클모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5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래 현재는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운영 중에 있다.<sup>31)</sup>

회복적 대화는 범죄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경찰관 등 이해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와 관계의 회복 그리고 문제되는 사안의 예방(혹은 재발방지)을 통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즉,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를 찾아 내고 그에게 어떤 처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응보적 절차와는 달리 가·피해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25) 김문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p.23-48.

26) 김문귀, 위의 논문, pp.27-29.

27) 김문귀, 위의 논문, p.29 이하.

28) 김문귀 외, 현장경찰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방안 연구, 앞의 보고서, pp.119-122.

29)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가이드, 2020, p.4.

30) 이러한 개념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많은 외국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지역사회 경찰활동 혹은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 임형진 · 김선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3, p.164.

범죄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피해와 당사자 간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다 함께 논의하는 회복적 절차이다.<sup>32)</sup>

회복적 대화는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개시되며, 경찰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기관<sup>33)</sup>이 주관한다. 성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소년사건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경찰관으로 지정된다. 사건 입건 전후단계 모두 대화모임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경미범죄뿐 아니라 중한범죄에도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34)</sup>

회복적 대화는 다음의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사건선정 단계’에서는 지역 경찰과 수사부서에서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여 전담부서(청문감사관실,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연계한다. 둘째, ‘예비 검토 단계’에서는 담당경찰관과 전문기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대화모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회복적 대화 단계’에서는 전문기관 주관으로 가·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족·교사 등), 담당경찰관 등이 참여하여 대화모임이 개최되는데, 사전모임과 본 모임 2단계로 진행되기도 하고, 사전모임 없이 바로 본모임이 진행되기도 한다. 넷째, ‘결과반영 단계’에서는 수사부서에서 대화모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국처리(내사종결, 불기소, 훈방, 즉결심판청구, 검찰 또는 법원 송치 등)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경미사안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성인 사건) 또는 선도심사위원회(소년사건)을 거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전문기관과 담당경찰관이 대화모임 이후 약속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후모임을 진행한다.<sup>35)</sup>

### 3.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관련 선행연구

32) 김문귀·임형진,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p. 243; 노성훈 외, 폴리스 트랜드, 2020, p.173.

33) 2019년 시범운영 당시에는 갈등해결과 대화, 비폭력평화물결,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등이 주관하였다(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20, p.225).

34) 심보영, 위의 논문, pp.224-225.

35)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가이드, 2020, pp.8-21; 심보영, 위의 논문, pp.226-227.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전술한 경찰청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시범운영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계방법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회복적 대화에 대한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평가연구에서는, 회복적 대화가 가해자의 책임인지, 가·피해자 간의 관계회복, 피해자의 피해회복, 당사자의 감정순화, 재범가능성 감소, 경찰의 신뢰도 및 법에 대한 존중감 향상,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6)</sup>

둘째, 전문기관 소속 진행자를 중심으로 한 평가연구에서는, 회복적 대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 단계 회복적 대화는 피해회복에 신속하여, 관계회복 및 재발방지에 효과가 크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 단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sup>37)</sup>

셋째, 담당경찰관(피해자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연구에서는 회복적 대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 참여한 담당경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8)</sup>

넷째, 사건 담당 수사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연구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 당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의 수사관들이 회복적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회복적 대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대다수 수사관들은 회복적 대화가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sup>39)</sup>

36)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131-163.

37)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진행자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367-405.

38) 임형진 · 김용석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담당경찰관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129-161.

39)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사건 담당 수사관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47-70.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신 가·피해자 간 관계회복,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유지·개선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2019년 시범운행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였다.

#### 2. 연구설계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진 가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설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설문 초안은 선행연구에 활용된 설문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sup>40)</sup> 둘째,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설문 초안을 네이버 폼에 옮겨, 학생 10명에게 네이버 폼 링크가 전달되었다. 해당 학생들은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그 결과 설문의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설문을 완성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발견된 오류 등을 수정하여 설문을 최종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은 다시 네이버 폼으로 옮겨졌다. 넷째, 설문을 대상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연구진이 네이버 폼 링크 주소를 경찰

40) 설문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임형진·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앞이 논문에서 같은 목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던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청 담당자에게 보냈고, 경찰청 담당자가 경찰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에게 해당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후 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이 다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해당 링크 전송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가 수집되었다. 설문은 2022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7명이 참여하여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수집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총 87명 중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명을 제거하고 나머지 81명의 응답에 대해 최종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응답수	상대빈도(%)
성별	남성	57	70.4
	여성	24	29.6
연령(만)	10대	13	16.0
	20대	8	9.9
	30대	22	27.2
	40대	22	27.2
	50대	11	13.6
	60대	5	6.2
직업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13	16.0
	사무직	14	17.3
	서비스직, 판매직	8	9.9
	사업	1	1.2
	농업, 임업, 어업	3	3.7
	기능직, 기계조작직, 조립직	1	1.2
	단순노무직	6	7.4
	프리랜서	1	1.2
	전업주부	4	4.9
	학생	17	21.0
	무직	7	8.6
	기타	6	7.4

교육수준	고졸(중퇴 포함) 이하	31	38.3
	2년제 대졸(중퇴, 재학)	11	13.6
	4년제 대졸(중퇴, 재학)	34	42.0
	대학원졸(중퇴, 재학)	2	2.5
	무응답	3	3.7
소계		81	100

###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관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긍정’ 또는 ‘부정’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평균분석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관련 각각의 질문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IV. 분석 결과

### 1. 회복적 대화 설명에 대한 이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관련한 가해자들의 응답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경찰관으로부터 회복적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9.0%)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2.3%)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8.7%)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99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진행자로부터 회복적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6.5%)는 4점 이상의 높은 점

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4.8%)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8.7%)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98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들은 경찰관과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표 2> 회복적 대화 참여 경험 관련 응답 분석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2	3	4	5		
경찰관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경찰관으로부터 “회복적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3.99	2 (2.5%)	5 (6.2%)	10 (12.3%)	39 (48.1%)	25 (30.9%)	81 (100%)	
진행자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진행자로부터 “회복적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3.98	2 (2.5%)	5 (6.2%)	12 (14.8%)	36 (44.4%)	26 (32.1%)	81 (100%)	

## 2. 회복적 대화 경험에 대한 평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중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회복적 대화에서 사안이 잘못 다루어질 경우, 내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느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6.8%)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7.2%)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6.1%)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6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내가 저지른 일에 관하여, 그 이유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6.5%)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8.5%)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5.0%)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4.05로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졌다’라는 설문 문항

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2.9%)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8.5%)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8.7%)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9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회복적 대화 참여 경험 관련 응답 분석(1)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2	3	4	5		
자율성	“회복적 대화”에서 시안이 잘못 다루어질 경우, 내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느꼈다.	3.63	5 (6.2%)	8 (9.9%)	22 (27.2%)	23 (28.4%)	23 (28.4%)	81 (100%)	
정직성	내가 저지른 일에 관하여, 그 이유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였다.	4.05	2 (2.5%)	2 (2.5%)	15 (18.5%)	33 (40.7%)	29 (35.8%)	81 (100%)	
공정성	“회복적 대화”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졌다.	3.93	5 (6.2%)	2 (2.5%)	15 (18.5%)	31 (38.3%)	28 (34.6%)	81 (100%)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중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사항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진행자가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에 만족한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6.3%)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8.8%)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5.0%)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69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진행자는 나와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6.6%)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2.2%)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1.1%)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85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 과정에서 나의 입장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1.6%)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2.2%)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6.2%)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98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 과정에서 나는 진행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8.0%)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2.1%)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9.9%)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81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경험 후, 가해자들은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자신의 입장 및 감정 표현 기회 제공, 진행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 모두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회복적 대화 참여 경험 관련 응답 분석(2)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2	3	4	5		
진행자 관련	진행자가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3.69	2 (2.5%)	10 (12.5%)	23 (28.8%)	21 (26.3%)	24 (30.0%)	80 (100%)	
	진행자는 나와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했다.	3.85	3 (3.7%)	6 (7.4%)	18 (22.2%)	27 (33.3%)	27 (33.3%)	81 (100%)	
	“회복적 대화” 과정에서 나의 입장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3.98	3 (3.7%)	2 (2.5%)	18 (22.2%)	29 (35.8%)	29 (35.8%)	81 (100%)	
	“회복적 대화” 과정에서 나는 진행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3.81	2 (2.5%)	6 (7.4%)	26 (32.1%)	18 (22.2%)	29 (35.8%)	81 (100%)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중 경찰 관련 사항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나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2.9%)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0.9%)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6.2%)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88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법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많

은 응답자(49.4%)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7.0%)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3.5%)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59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많은 응답자(46.9%)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40.7%)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2.3%)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57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경험 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회복적 대화 참여 경험 관련 응답 분석(3)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경찰 관련	“회복적 대화”를 통해 나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3.88	2 (2.5%)	3 (3.7%)	25 (30.9%)	24 (29.6%)	27 (33.3%)	81 (100%)
	“회복적 대화”를 통해, 법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	3.59	4 (4.9%)	7 (8.6%)	30 (37.0%)	17 (21.0%)	23 (28.4%)	81 (100%)
	“회복적 대화”를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	3.57	3 (3.7%)	7 (8.6%)	33 (40.7%)	17 (21.0%)	21 (25.9%)	81 (100%)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중 회복 관련 사항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나는 피해자와 오해(원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8.1%)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7.2%)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4.8%)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67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내가 피해 입힌 사람(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 피해결과와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 응

답자(59.3%)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0.9%)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9.9%)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75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합의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3.0%)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4.7%)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2.3%)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78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부끄러움, 분노, 두려움, 죄책감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3.1%)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0.9%)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4.8%)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6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오해(원한) 풀기, 피해결과와 과오에 대한 인식,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 불편한 감정 해소에 있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회복적 대화 참여 경험 관련 응답 분석(4)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	2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회복 관련	“회복적 대화”를 통해, 나는 피해자와 오해(원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	3.67	3 (3.7%)	9 (11.1%)	22 (27.2%)	25 (30.9%)	22 (27.2%)	81 (100%)
	“회복적 대화”를 통해, 내가 피해 입힌 사람(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 피해결과와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	3.75	2 (2.5%)	6 (7.4%)	25 (30.9%)	25 (30.9%)	23 (28.4%)	81 (100%)
	“회복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합의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3.78	3 (3.7%)	7 (8.6%)	20 (24.7%)	26 (32.1%)	25 (30.9%)	81 (100%)
	“회복적 대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부끄러움, 분노, 두려움, 죄책감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63	4 (4.9%)	8 (9.9%)	25 (30.9%)	20 (24.7%)	23 (28.4%)	81 (100%)

### 3.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권유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기존 형사사법절차보다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1.8%)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일부(16.0%) 있었으며, 상당수의 응답자(22.2%)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58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참여 권유에 있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7>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 관련 응답 분석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	2	3	4	5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기존 형사사법절차보다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3.58	7 (8.6%)	11 (13.6%)	13 (16.0%)	28 (34.6%)	22 (27.2%)	81 (100%)

### 4. 사건에 대한 책임인지

가해자의 사건에 대한 책임인지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6.6%)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5.9%)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7.4%)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84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lt;표 8&gt; 가해자의 사건에 대한 책임인지 관련 응답 분석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전체
			1	2	3	4	5		
책임 인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3.84	1 (1.2%)	5 (6.2%)	21 (25.9%)	33 (40.7%)	21 (25.9%)	116 (100%)	

## 5. 향후 행동

향후 행동에 관한 가해자 자신의 인식과 관련된 응답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일부(12.4%)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일부(8.6%) 있었으며, 대다수 응답자(79.0%)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1.85로 보통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종료 후에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일부(11.1%)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6.0%) 있었으며, 대다수 응답자(72.8%)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1.93으로 보통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자에 대해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일부(9.9%)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7.3%) 있었으며, 대다수 응답자(72.8%)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1.95으로 보통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자의 일부(8.7%)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16.0%) 있었으며, 대다수 응답자(75.3%)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1.89로 보통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향후 행동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 앞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 반복에 대해 보통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가해자들의 가해행위 반복에 대한 인식의 평균 점수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1.85) < 종료 후(1.93) < 향후(1.95) 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가해행위 반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9> 가해자(들)의 향후 행동 관련 응답 분석

구분	설문 문항	평균	보통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향후 행동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했다.	1.85	41 (50.6%)	23 (28.4%)	7 (8.6%)	8 (9.9%)	2 (2.5%)	81 (100%)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종료 후에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했다.	1.93	39 (48.1%)	20 (24.7%)	13 (16.0%)	7 (8.6%)	2 (2.5%)	81 (100%)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자에 대해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5	36 (44.4%)	23 (28.4%)	14 (17.3%)	6 (7.4%)	2 (2.5%)	81 (100%)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또다시 해당 사건과 같은 가해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89	38 (46.9%)	23 (28.4%)	13 (16.0%)	5 (6.2%)	2 (2.5%)	81 (100%)

## 6. 사법처리과정 경험 후의 감정변화

사법처리과정 경험 후의 감정변화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관련된 응답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 강해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5.6%)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3.3%)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1.1%)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70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더 이상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0.0%)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5.0%)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5.1%)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96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자존심이 회복되었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상당수 응답자(42.0%)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많았으며(44.4%), 일부 응답자(13.6%)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36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누그러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많은 응답자(48.2%)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40.7%)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1.1%)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53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1.9%)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7.0%)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1.1%)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58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4.3%)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3.3%)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2.3%)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67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많은 응답자(48.2%)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39.5%)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2.3%)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56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가해자들은 사법처리 후의 감정변화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향상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자존심 회복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사법처리과정 경험 후의 감정변화 관련 응답 분석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2	3	4	5		
사법 처리 후의 감정 변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 강해졌다.	3.70	1 (1.2%)	8 (9.9%)	27 (33.3%)	23 (28.4%)	22 (27.2%)	81 (100%)	
	더 이상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96	1 (1.3%)	3 (3.8%)	20 (25.0%)	30 (37.5%)	26 (32.5%)	80 (100%)	
	자존심이 회복되었다.	3.36	5 (6.2%)	6 (7.4%)	36 (44.4%)	23 (28.4%)	11 (13.6%)	81 (100%)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나쁜 감정이 누그러졌다.	3.53	3 (3.7%)	6 (7.4%)	33 (40.7%)	23 (28.4%)	16 (19.8%)	81 (100%)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3.58	3 (3.7%)	6 (7.4%)	30 (37.0%)	25 (30.9%)	17 (21.0%)	81 (100%)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	3.67	4 (4.9%)	6 (7.4%)	27 (33.3%)	20 (24.7%)	24 (29.6%)	81 (100%)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	3.56	3 (3.7%)	7 (8.6%)	32 (39.5%)	20 (24.7%)	19 (23.5%)	81 (100%)	

## 7.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만족도와 관련된 응답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58.1%)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5.9%)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16.0%)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65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에 대해 만족하나요?’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8.8%)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5.0%)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6.3%)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91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 만족하나요?’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60.5%)는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을 준 응답자도 상당수(29.6%)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9.9%)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평균은 3.81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 모두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담당경찰관에 대한 만족도가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 보다 평균 점수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관련 응답 분석

구분	설문 문항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	2	3	4	5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3.65	6 (7.4%)	7 (8.6%)	21 (25.9%)	22 (27.2%)	25 (30.9%)	81 (100%)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에 대해 만족하나요?	3.91	3 (3.8%)	2 (2.5%)	20 (25.0%)	29 (36.3%)	26 (32.5%)	80 (100%)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 만족하나요?	3.81	3 (3.7%)	5 (6.2%)	24 (29.6%)	21 (25.9%)	28 (34.6%)	81 (100%)

## V. 결 론

### 1. 연구내용 정리 및 토의

이 연구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가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87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는 81명의 설문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인식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들은 경찰관과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및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경험 후, 가해자들은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자신의 입장 및 감정 표현 기회 제공, 진행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넷째,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경험 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오해(원한) 풀기, 피해결과와 과오에 대한 인식,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 불편한 감정 해소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참여 권유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 앞으로, 그리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 반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 모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진행자에 비해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만족감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선행연구<sup>41)</sup>와 유사하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및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더불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자율성, 공정성이 보장되고, 자신들도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자와 담당경찰관을 신뢰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지 제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 연구는 아직까지 선행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몇 가지 더 보여준다. 첫째, 이 연구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향후 행동과 관련하여,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 진행 후, 향후로 시간을 나누어 각각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가해행위 반복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에 대해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보다는 진행자에 대해, 진행자보다는 담당경찰관에 대해 더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 2. 정책적 제언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회복적 대화’ 프로

41) 임형진·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131-163.

그램이 다양한 면에서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범죄수사와 범인검거 중심의 전통적(응보적) 경찰활동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담당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부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진행자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해자의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진행하고, 회복적 대화 준비(예를 들어, 사전 모임 등)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신들의 가해행위 반복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이후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사후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즉,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했다. ‘회복적 대화’에 참여한 가해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찰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이 연구도 일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가해자 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들 중 설문조사에 응하는 희망자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만들지는 못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설문 링크를 전송한 후, 링크를 받은 가해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설문 참여하도록 했으므로 무작위 추출과 유사한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 분석 결과와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 담당경찰관, 진행자 등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의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등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의 제약으로 이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더 많은 국내 연구가 필요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즉,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을 검증함으로써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독자들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의 표본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sup>42)</sup>의 표본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점도 이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와 연계하여, 향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경험한 가해자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가해자 간에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 담당경찰관, 진행자 등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42)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pp.131-163.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가이드, 서울: 경찰청, 2020.

김 혁, “경찰의 효과적 학교폭력 대응방안”, 경찰인재개발원 논문집, 제29집, 2013, p.59.

김문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p. 23-48.

김문귀,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pp.1-22.

김문귀 · 노성훈 · 심희섭 · 김혁 · 이명원 · 백두용 · 박기태, 회복적 경찰활동(공역), 경찰대학출판부, 2016.

김문귀,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 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pp.21-46.

김문귀 · 임형진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20, pp.237-274.

김문귀 · 임형진 · 김중곤 · 심희섭, 현장 경찰관의 회복적 경찰활동 방안 연구, 경찰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pp.93-145.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p. 29-51.

노성훈 · 정진성 · 이봉한 · 정대용 · 김중곤 · 박선영 · 임형진 · 강욱 · 김영식 · 김문귀, 폴리스 트랜드, 서울: 박영사, 2020.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20, pp.213-238.

- 이승협.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1호, 경찰대학, 2019, pp 211-242.
-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범이념의 실천방안,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pp.131-163.
-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진행자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pp.367-405.
- 임형진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사건 담당 수사관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제66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pp. 47-70.
- 임형진 · 김용석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담당경찰관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2021, pp.129-161.
- 임형진 · 김선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3, pp. 161-184.

## 2. 국외문헌

- Clamp(K.), Paterson(C.), *Restorative policing: concepts,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17.
- Johnstone(G.),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Willan Pub, 2002.
- Kim(M.K), *Essai sur la justice restaurative illustré par les exemples de la France et de la Corée du Sud*, Thèse, Université de Montpellier, 2015.
- Lofty(M.), *Restorative Policing, “Dreaming of New Reality,”*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ferencing Circles and other Restorative Practice, August 8-10, Minneapolis, Minnesota, 2002, [www.iirp.org/library/mn02/mn02\\_lofty.html](http://www.iirp.org/library/mn02/mn02_lofty.html).

-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 Nicholl(C.),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 Exploring the links for the delivery of a balanced approach to public safet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1999.
- Tubex(H.), Houchin(R.), Opportunities for restorative justice in the contemporary penal climate,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173-188
- Van Ness(D.), Strong(K.), *Restoring Justice: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fifth edition. 2014.



[ABSTRACT]

**Offenders' perception of restorative poling**  
**- Focusing o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

**Lim, Hyung-Jin\* · Kim, Moon-Kwi\*\***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offenders perceive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being conducted by the police recent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87 offenders, and analyzed the survey responses of 81 peopl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rom beginning to e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ffender's perception of the program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petrators generally had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the police officers and facilitators explained. Second, the perpetrato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ir autonomy and the fairness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and responded very positively to their honesty. Third, after experiencing the program, offenders had positive evaluations regarding the way the facilitator prepared for restorative dialogue, fair treatment of themselves and others,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position and emotions, and trust in the facilitator. Fourth, after experiencing the program, offenders had positive evaluations of trust in the police, respect for the law, and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Fifth, the perpetrators perceived the program positively in resolving misunderstandings (grievances), recognizing the consequences of damage and mistakes, being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agreement, and resolving uncomfortable feelings.

---

\* Professor, Dr. Criminal Justice, Dept of Police Science, Baekseok University(First Author).

\*\* Professor, Dr. jur, Dept of Law & Police Administration, Hoseo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ffender's perception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re as follows. First, offend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Second, the perpetrator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admitting their mistakes through the program. Third, the perpetrators reacted very negatively to repeating acts of harm against others other than the victim during, after, and in the future of the program. Fourth, perpetrators have positive feelings about their increased feelings of sorry for the victims, the thought of not repeating the offending, decreased bad feelings toward those who criticized them, improved family relationships, improved trust in the police, and improved trust in people. Lastly, the offender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and the facilitator.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than the facilita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needs to be maintained and developed. Secon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increase offender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ird, there is a need to continue managing the perpetrator(s) even after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Last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promotion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o the general public.

### **Key Words**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Offenders, Evaluations